철학이야기

**책 제목: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남경태, 허진 옮김. 그린비

*들어가며*

*원래 책에는 소제목들이 없습니다. 다만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워크숍 주제와 관련되어서 영감을 받은 것에 따라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전체 글을 읽기에는 다소 부담되어서 제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이고 순서대로 발췌를 하였습니다. 읽으실 때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페다고지에서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하는 ‘연구’란 민중 교육을 하기 위해 그 교육 주제와 내용을 민중으로부터 얻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민중과 만나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주제 및 교육 내용을 도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교육사상가인 파울로 프레이리가 연구분야(시민참여연구)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워크숍 주제에는 ‘시민참여연구’라고 표현하였지만 소제목에는 연구 뿐만이 아니라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참여연구’활동’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소제목 목차**

-시민참여연구활동가의 철학-(p109~115)

- 엘리트 중심의 사회혁신 방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p117~p120)

- 어떠한 연구활동이 되어야 하는가 – (p120~p121)

-사회변화에 있어 연구활동의 역할- (p129~p130)

-연구활동에 있어 상징적 표현의 필요성- (p130)

-연구활동 결과물과 시민의 상호작용-(p131)

-시민참여연구활동의 대상-(p131~p132)

-시민참여연구활동의 목적-(p132~p133)

- 시민참여연구활동에 있어 유의사항 – (p133~p135)

- ‘상황극을 통한 토론방법’에 대한 철학적 근거 – (p135)

-교육과 연구는 분리된 것이 아님- (p135)

- 시민참여연구활동의 과정(사례)- (p136~p152)

+ 현대 학자들과의 인터뷰

**제3장(p109~152)**

**-시민참여연구활동가의 철학-(p109~115)**

대화를 인간적 현상으로 분석하려 할 때 우리는 대화의 본질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말은 단지 대화를 가능케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구성요소들을 찾아야한다. 말에는 성찰과 행동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있다. 이 양자는 근본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를 버리면 다른 하나도 즉각 손상된다. 프락시스가 없는 참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1]](#footnote-1) 따라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은 곧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짓된 말은 말의 구성요소들이 이분화되어 있을 때 생겨난다. 말에서 행동의 차원이 제거되면 성찰도 사라지고 말은 한가한 수다, 탁상공론, 소외적인 ‘허튼소리’가 되어버린다. 이런 공허한 말로는 세계를 비판할 수 없다. 변화에 헌신하지 않으면 비판이 불가능하며, 행동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반면 행동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성찰이 부족할 경우, 말은 행동주의(activism)로 전화된다. 행동주의-행동을 위한 행동-는 참된 프락시스[[2]](#footnote-2)를 부정하며,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분법도 역시 거짓된 존재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거짓된 사고 형태를 만들어 내며, 또 그럼으로써 원래의 이분법을 더욱 강화시킨다.

인간 존재는 침묵할 수도 없고, 거짓된 말로 살아갈 수도 없다. 오직 참된 말로만 인간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인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를 이름짓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지어진 세계는 다시 인간에게 문제로서 나타나며, 새로운 이름짓기를 요구한다. 인간존재는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3]](#footnote-3) 말과 일과 행동-성찰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참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일이며 프락시스다- 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기 혼자만 참된 말을 할 수는 없으며, 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빼앗는 명령적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화는 사람들이 세계를 매개로 하여 세계를 이름짓기 위해 만나는 해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이름짓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이름짓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말할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 간에는 대화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원초적 권리를 부정당한 사람들은 먼저 그 권리를 되찾아 비인간적 상황이 영속화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세계를 이름지음으로써 변화를 꾀하는 길이 민중이 자신의 말을 하는데 있다면, 대화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인간존재로서의 의미를 획득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대화는 실존의 필수 요건이다. 대화는 대화자의 통한된 성찰과 행동이, 변화되고 인간화되어야 할 세계로 접근하는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 단지 한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화는 단순히 생각을 교환하여 그 생각이 토론자들 간에 ‘소비’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대화는 세계를 이름짓는데 헌신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적대적인 논쟁도 아니다. 대화는 세계를 이름짓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름짓는 상황이어서는 안된다. 대화는 창조행위이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대화 속에서 함축된 지배는 대화자들에 의한 세계 지배다. 즉 그것은 인류 해방을 위한 세계의 정복이다.

그러나 대화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원대한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세계를 이름짓는 일, 그 창조와 재창조의 행위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4]](#footnote-4) 사랑은 대화의 토대인 동시에 대화 그 자체다. 따라서 사랑은 책임있는 주체의 임무이며, 지배 관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지배는 병리적 사랑을 드러낸다. 즉 지배자에게는 사디즘으로, 피지배자에게는 마조히즘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뜻한다. 피억압자가 어디 있든 사랑의 행위는 피억압자와 해방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 이 헌신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대화적이다. 사랑은 용감한 행위이므로 감상적이 될 수 없고, 자유의 행위이므로 조작의 구실로 기능해선 안된다. 사랑은 다른 자유의 행위를 유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다. 억압의 상황을 근절해야만 그 상황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사랑을 되살릴 수 있다. 내가 세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민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한편 대화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세계를 이름지음으로써 세계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과정은 오만한 태도로는 불가능하다. 배우고 행하는 일상적인 과제를 둘러싼 만남의 장인 대화는 대화 양측(혹은 한측)이 겸손하지 않으면 깨어진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늘 무지하게만 여기고 실상 내 자신의 무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에게서 또 하나의 ‘나’가 아닌 ‘그것’만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 나 자신을 진리와 지식을 소유한 ‘순수한’사람들의 일원으로 여기고 그에 속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 사람들’ 혹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로 보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 세계의 이름 짓기를 엘리트의 과제로 여기고, 역사에 민중이 등장하는 것은 퇴보이므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 다른 사람들의 간섭에 반대하고 심지어는 화를 낼 정도인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성가신 인물이 되고 약점을 추궁당하지나 않을까만 걱정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 자만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 겸손함이 결여된(혹은 겸손함을 잃어버린)사람은 민중에게 다가갈 수 없으며, 그들과 함께 세계를 이름 지을 수 없다. 자신이 여느 사람과 똑같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민중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아주 먼 길을 헤쳐나와야한다. 이 만남에는 완전한 바보도 없고 완벽한 현인도 없다. 단지 함께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민중만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대화는 인류에 대한 깊은 신념을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이 세계를 만들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신념, 더 완전한 인간성을 찾는 소명(이것은 엘리트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타고난 권리다)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 것이다. 민중에 대한 신념은 대화의 선험적인 요건이다. ‘대화적 인간’은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하지만 그 신념은 단순하지 않다. ‘대화적 인간’은 인간이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들이 소외되면 그 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민중에 대한 신념을 손상시키기는커녕 ‘대화적 인간’에게 분발해야할 자극으로 다가온다. 그는 설사 구체적인 상황에서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위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되찾고자 노력한다. 그 힘을 회복한 뒤에는 – 그것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 해방투쟁을 거쳐서 얻어진다 – 노예 노동이 해방된 노동으로 대체되어 삶의 열정을 얻을 수 있다. 민중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대화는 공염불이 되며, 오히려 가부장적 조작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사랑과 겸손, 신념에 뿌리를 둔 대화가 만들어 내는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화자들 간의 상호 신뢰가 싹트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다. 즉 사랑과 겸손, 신념에서 나온 대화가 상호 신뢰의 분위기,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에서 세계를 이름짓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반대로 반(反)대화적인 은행 저금식 교육방법에서 그런 신뢰가 나오지 못한다. 인류에 대한 신념은 대화를 위한 선험적 요인이지만, 신뢰가 생겨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다. 따라서 대화가 무너진다면 신뢰의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셈이다. 거짓된 사랑, 거짓된 겸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약한 신념은 신뢰를 조성할 수 없다. 신뢰는 한 측이 다른 측에 진실하고 구체적인 의도를 전달해야만 생겨날 수 있다. 즉 어느 한 측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가 싹틀 수 없는 것이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 – 예컨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 – 는 신뢰를 낳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운위하면서 민중을 침묵하게 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며, 휴머니즘을 운위하면서 민중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또한 희망이 없으면 대화도 있을 수 없다. 희망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은 희망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모색에 뛰어든다. 이 모색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 속에서만 가능하다. 침묵에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세계를 부정하고 세계로부터 도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불의의 질서에서 비롯되는 비인간화는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낳으며, 불의가 거부한 인간성을 줄기차게 추구하게 만든다. 하지만 희망은 단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는데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싸움을 계속하는 한 희망을 유지할 수 있으며, 희망을 가지고 싸우는 한 기다릴 수 있다. 사람들의 만남은 더 완전한 인간성을 추구하므로 희망이 없는 분위기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다. 대화자가 자신의 노력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공허하고 무익하며, 형식적이고 따분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대화자가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대화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판적 사고란 세계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분법을 버리는 사고이며, 현실을 정태적인 실체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변화로서 파악하는 사고, 행동과 분리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현실 속에 빠져드는 사고를 가리킨다. 비판적 사고는, “역사적 시간을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층층히 쌓인 결과물로 여기고, 거기서 정상적이고 ‘행실이 단정한’ 현재가 나온 것으로 여기는 단순한 사고와는 다르다. 단순한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오늘’에 적응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는 현실의 지속적인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인간화를 지향한다.

(중략)

**- 엘리트 중심의 사회혁신 방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p117~p120)**

진정한 휴머니스트 교육자와 참된 혁명가에게 행동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변화시켜야 할 현실이다. 억압자는 민중에게 지금 그대로의 현실을 주입하고 그에 적응하도록 만든다. 불행히도 혁명 지도부 역시 혁명적 행동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은행 저금식 기법[[5]](#footnote-5)의 덫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농민이나 도시 대중에게 민중 자신의 세계관이 아닌 그들의 세계관에 일치하는 교육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민중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있는 게 아니라 민중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민중과 더불어 싸우는 것임을 잊고 있다. 민중을 끌어들인다는 말은 혁명 지도부의 어휘가 아니라 억압자의 어휘다. 혁명가의 역할은 민중을 획득하는게 아니라 민중을 해방시키고 자신들도 함께 해방되는데 있는 것이다.

지배 엘리트의 정치 활동은 은행 저금식 기법을 이용하여 피억압자를 ‘침잠’된 의식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수동성을 조장하고, 그 수동성을 악용하여 그들의 의식 속에 자유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구호들을 ‘주입’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참된 해방적 행동과 모순을 빚는다. 해방적 행동은 억압자의 구호를 문제로서 제시하고 피억압자가 자신의 내부에 그 구호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휴머니스트의 임무는 억압자의 구호에 맞서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구호를 부르짖는게 아니다. 그것은 피억압자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한 집단의 구호를 다른 집단에 ‘수용’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 반대로 휴머니스트의 임무는 피억압자가 억압자를 자신의 내부에 ‘수용’하는 이중적 존재가 되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임무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혁명 지도부가 민중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민중 자신의 객관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즉 민중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에 관해 다양한 수준의 인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민중이 가진 특수한 세계관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교육과 정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한 교육 내용은 설사 선의를 지니고 있다 해도 문화 침략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육 내용이나 정책을 편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민중의 열망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체험적이며, 현재적인 상황이어야만 한다. 특정한 기본 모순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재적인 상황을 민중 앞에 자극과 반응을 요구하는 문제로서 제시해야한다. 물론 이것은 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행동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우리는 단지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서는 안되며, 민중의 선입견, 의심, 희망, 공포 등을 무시한 계획을 제시해서도 안된다. 그러한 계획은 오히려 피억압 의식의 공포만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역할은 민중에게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말한다거나 그 세계관을 강요하는게 아니라, 민중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에 대해 민중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행동으로 표출된 민중의 세계관이 세계 속에서 그 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 정책은 ‘은행 저금식’이 되거나 사막에서의 설교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 어떠한 연구[[6]](#footnote-6)활동이 되어야 하는가 – (p120~p121)**

인간을 매개하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 교육자와 민중이 가진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교육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내가 민중의 ‘주제영역’(thematic universe) –‘생성적 주제’(generative themes)의 복합체 – 이라고 이름 지은 것에 대한 연구는 자유의 실천인 대화식 교육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를 위한 방법론도 역시 대화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생성적 주제를 발견하는 기회와 더불어 이 주제에 관한 민중의 자각을 자극하는 기회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대화식 교육의 해방적 목적에 부응하는 이 연구의 대상은 파편화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과 관계하는 생각-말이며, 인간이 생성적 주제의 배경을 이루는 현실과 자신의 세계관을 인식하는 여러가치 차원이다.

‘생성적 주제’는 ‘최소한의 주제 영역’을 명확히 밝혀주겠지만, 그것을 더 상세히 규정하기 전에 먼저 몇가지 예비적 성찰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생성적 주제라는 개념은 임의로 발명해낸 것도 아니고 작업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라면, 초기의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주제의 성격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주제 자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즉 주제의 풍부함과 의미, 다원성, 변형, 역사적 구성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제가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해야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주제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에 비해, 비록 비판적 회의의 자세가 필요하겠지만, 생성적 주제의 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생성적 주제는 각자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 세계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사회변화에 있어 연구활동의 역할- (p129~p130)**

대체로, 아직 총체적으로 한계상황[[7]](#footnote-7)을 파악하지 못한 지배당한 의식은 단지 그 부수 현상만을 우려하며, 그것을 한계상황의 속성인 억제력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민중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전체 구성요소와 무관한 파편들로 간주할 경우, 민중은 그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현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출발점을 거꾸로 가져가야한다. 즉 민중은 우선 정황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지니고 그 구성요소들을 분리시킨 다음, 상세한 분석을 통해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어야하는 것이다.

주제 연구의 방법론에서나 문제제기식 교육에서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개인이 처한 현실의 의미 차원을 드러내려는 노력이다. 이것을 분석하면 개인은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구성된 의미 차원은 총체적 현실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야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 존재의 차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한계상황을 새롭고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며, 그럼으로써 현실의 인식과 이해는 수정되고 새로운 깊이를 얻는다. 최소한도의 주제영역(상호작용하는 생성적 주제들) 속에 포함된 생성적 주제의 연구가 의식화의 방법론으로 진행될 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비판적 사고 형식을 갖추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연구활동에 있어 상징적 표현의 필요성- (p130)**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존재는 현실을 복잡하고 난해하고 불가해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일단 추상을 이용한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방법은 구체를 추상으로 환원하는게 아니라(그럴 경우 결국 그 변증법적 성격을 부정하게 된다) 두 요소를 성찰 행동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상호연관되는 대립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변증법적 운동의 좋은 예는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문서화된’(coded)상황을 분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프레이리가 말하는 ‘문서’란 단순히 종이로 된 ‘서류’를 뜻하는게 아니라 현실을 이차적으로 가공한 ‘자료’라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해독’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 옮긴이].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추상에서 구체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분에서 전체로 갔다가 다시 부분들로 돌아와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체가 객체(문서화된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속에서 자신을 인식해야 하며, 객체를 주체 자신이 다른 주체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그 문서 해독이 잘 이뤄지면, 문서화된 상황을 분석할 때 추상에서 구체로 왔다갔다하는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구체의 비판적 인식에 의해 추상이 사라진다. 이로써 현실은 복잡하고 난해한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구활동 결과물과 시민의 상호작용-(p131)**

문서화된 체험적 상황에 처할 경우(추상에 의해 실존적 현실의 구체성으로 이끄는 그림이나 사진) 인간은 그 문서화된 상황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문서 해독 과정에서 그 분리는 우리가 ‘상황의 묘사’라고 부르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각난 전체의 부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발견하기가 쉬워진다. 이 전체(문서화된 상황)는 그 전까지는 그저 산만하게 파악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이 전체를 향해 거꾸로 흐름으로써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문서화는 실존적 상황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서 해독자는 그 표현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대단히 구체적인 상황에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실이 더 이상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 않고 진정한 측면을 내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객관적 현실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 인간 존재가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도전이다.

문서 해독의 모든 단계에서 민중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외면한다. 또한 그들이 세계를 사고하고 대면하는 방식 -이를 테면 숙명론적인가, 역동적인가, 혹은 정태적인가 – 에서도 그들의 생성적 주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생성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집단 -이로인해 주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은 실상 아주 극적인 주제, 즉 침묵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침묵의 주제는 한계상황의 압도적인 힘에 눌린 무언증의 구조를 나타낸다.

**-시민참여연구활동의 대상-(p131~p132)**

여기서 재차 강조할 것은, 생성적 주제는 현실과 유리된 채 민중 속에서 발견되지도 않고하고, 또 민중과 유리된 채 현실 속에서 발견되지도 않으며, ‘인간이 없는 곳’에서는 더더욱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오직 인간-세계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생성적 주제를 연구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민중의 사고와 민중이 현실에 가하는 행동, 즉 민중의 프락시스를 연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안된 방법론에 따르면 연구자와 민중(이들은 보통 그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된다)은 함께 공동연구자가 되어야한다. 사람들은 주제 연구에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수록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그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가운데 현실을 장악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의미한 주제를 탐색하는 데 민중들을 연구자로 끌어들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참견(자기 자신의 교육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혹은 가져야하는 사람들의 ‘참견’)이 주제 탐색을 ‘불순’하게 만들 것이고, 그럼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이 훼손되리라는 믿음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주제가 본래의 객관적 순수함으로, 마치 사물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사실 주제는 민중 속에, 민중과 세계의 관계 속에 구체적 사실을 전거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똑같은 객관적 사실도 시대적 하위 단위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생성적 주제 복합체를 만들어 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생성적 주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연구활동의 목적-(p132~p133)**

유의미한 주제는 민중이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주제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민중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면, 특정한 표현의 계기는 그 전의 계기와 다를 것이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중이 그 계기를 볼 수 있게 되는 출발점을 알아내고, 연구과정 중에 그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다(물론 객관적 현실은 여전히 불변이다. 설사 연구 과정에서 현실 인식이 달라졌다해도 연구의 타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의미한 주제에 함축된 염원, 동기, 목표가 바로 인간의 염원, 동기, 목표라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것들은 어딘가 ‘저 바깥’에 정태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 존재만큼이나 역사적이며, 따라서 인간과 분리되어서는 파악될 수 없다. 그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구현하는 민중과 그것과 관련된 현실을 둘 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 그 주제를 민중과 분리된채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 그와 더불어 그 주제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게 주제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주제연구는 현실인식과 자기의식을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며, 그로 인해 해방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과정이나 문화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시민참여연구활동에 있어 유의사항 – (p133~p135)**

이 연구의 진정한 위험은 가정된 연구 대상이 자신을 공동연구자로 여긴 탓에 분석결과가 ‘불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아니다. 그 반대로 위험은 연구의 초점을 유의미한 주제로부터 민중 자신에게로 옮김으로써 민중을 연구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교사-학생과 학생들-교사들이 같은 대상에 관한 인식을 결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 자체도 행동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주제 연구는 기계적 행동으로 전락될 수 없다. 그것은 지식과 창조의 탐색과정이므로 연구자는 유의미한 주제를 연결짓는데서 문제들 간의 상호침투를 파악해야 한다. 연구는 가장 비판적일 때 가장 교육적이며, 현실을 파편화하거나 ‘집중화’하는 편협한 요약을 피하고 총체적 현실을 파악하려 할 때 가장 비판적이다. 따라서 유의미한 주제의 탐색과정에는 주제들 간의 연결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곧 주제를 문제로서 제시하고 주제를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심을 뜻한다.

교육자가 민중에게 제시할 프로그램을 애써 만들 필요가 없듯이, 연구자도 주제 영역을 연구하기 위한 ‘일정표’를 공들여 짜거나 출발점을 자신이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 교육과 교육을 지지하기 위한 연구는 모두 인신록적 의미에서 ‘교감적’ 행동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항상 ‘진행 중’이고 복합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한 공동 경험과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유기적인 것을 비유기적인 것으로, 진행중인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산 것을 죽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연구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변화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지도 않으며, 변화를 삶의 징후가 아니라 죽음과 부패의 징후로 여긴다. 그는 변화를 연구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자극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변화를 죽음의 징후로 보고 민중을 수동적인 연구 대상으로 만들어 엄격한 모델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지닌 삶의 파괴자로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제연구에는 민중의 사고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그 사고는 민중이 함께 현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만 일어날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 없이 사고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 사고할 수는 없다. 민중의 사고가 미신적이거나 소박할 경우, 그것이 변화하려면 민중이 행동 속의 전제를 다시 생각해야만 가능하다. 민중이 –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 직접 자신의 생각을 생산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과정을 구성해야만 한다.

**- ‘상황극을 통한 토론방법’에 대한 철학적 근거 – (p135)**

‘상황 속’의 존재인 민중은 시간-공간의 조건 속에 뿌리 박고 있으면서, 시간-공간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시간-공간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성(situationality)’에 관해 성찰하면서 상황의 도전을 받고 상황에 작용을 가한다. 인간존재는 상황 속에 있는 한 그럴 수 밖에 없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행동할수록 더욱 그 상황성을 첨예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상황성에 대한 성찰은 존재 조건 자제체에 대한 성찰이며, 서로가 ‘상황 속’에 있음을 발견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상황이 난해하고 복잡한 현실로서, 혹은 고통스런 막다른 골목으로서 보이지 않게 될 때에야 민중은 그것을 객관적-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며, 그때에야 비로소 민중은 존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면 인간은 침잠 상태에서 탈출하여 현실 속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현실 개입 -역사적 자각- 은 탈출로부터 한 단계 전진한 것이며, 상황에 대한 의식화의 결과다. 의식화는 모든 탈출의 특징인 자각의 자세를 심화시킨다.

**-교육과 연구는 분리된 것이 아님- (p135)**

따라서 역사적 자각을 심화시키는 모든 주제 연구는 교육적이며, 모든 참교육은 사고를 연구한다. 교육자와 민중이 민중의 사고를 연구할수록, 또 그럼으로써 공동으로 교육할수록, 그들은 연구를 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문제제기식 교육관에서 교육과 주제연구는 단지 같은 과정의 다른 계기를 이룰 뿐이다.

**- 시민참여연구활동의 과정(사례)- (p136~p152)**

예를 들어보자. 문맹률이 매우 높은 농촌 지역에서 성인교육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집단이 있다고 하자. 이 계획에는 문맹퇴치 작업과 문맹퇴치가 이루어진 뒤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앞 단계에서 문제 제기식 교육은 ‘생성적 언어’를 추구하고 연구하며, 뒷 단계에서는 ‘생성적 주제’를 추구하고 연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성적 주제나 유의미한 주제의 연구만을 고려한다고 해보자. 일단 연구자들이 작업할 지역을 정하고, 이차적 문헌을 통해 그 지역에 관한 예비 지식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연구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여느 인간 행동의 출발이 대개 그렇듯이) 이 출발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게 정상이지만, 그 지역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어려움과 위험이 언제나 즉각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 첫 접촉에서 연구자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을 확보해서 비공식적 회의를 열고, 그 분야에 뛰어들게 된 목적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그들은 연구의 이유와 진행방법, 용도를 말하고, 나아가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가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연구와 후속 과정에 동의한다면[[8]](#footnote-8), 연구자들은 참가자들 중에서 지원자를 뽑아 조수로 일하게 한다. 이 지원자들은 그 지역의 삶에 관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원자들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한편 연구자들은 처음 그 지역을 방문할 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감각적인 관찰자로 처신해야한다. 물론 연구자들이 그 지역에 올 때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제 연구를 구실로 삼아 그 가치관을 강요하려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내놓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연구자는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ㅇ가정된다) 가치관의 유일한 차원은 바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며, 여기에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현실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 포함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제 연구는 교육활동이자 문화활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연구자는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지역에 관한 자신의 비판적 ‘목적’을 설정한다. 그 작업은 마치 방대하고 독특하며 살아있는 ‘문서’를 푸는 작업과 같다. 연구자는 그 지역을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고 여러 차례의 방문을 통하여 얻은 부분적 차원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을 ‘분할’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여러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총체성 자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 문서 해독 단계에서 연구자는 그 지역 생황의 특정한 계기들을 관찰한다. 이 관찰은 때로는 직접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들과의 비공식적 대화를 통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주민들이 말하는 방식, 생활양식, 교회와 직장에서의 행동 등 사소해보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기록한다. 또한 연구자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즉 표현, 어휘, 구문 등에 관해서도 기록한다(발음이 부정확하다든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방식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연구자가 해당 지역의 다양한 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즉 연구자는 현장의 노동 상태, 지역단체의 회의(특히 참가자들의 행동, 구사하는 어투, 간부와 직원의 관계), 여성과 젊은이의 역할, 여가 시간, 오락과 운동, 가정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특히 남편-아내 와 부모-자식 관계의 사례)등을 면밀히 관찰한다. 연구자는 초기 지역조사에서 어떤 행동도 놓치면 안된다.

관찰 방문을 할 때마다 연구자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체 팀과 토론하고, 전문적 연구자와 현지 조수들이 일차적으로 발견한 결과를 평가한다. 조수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가회의는 그 지역에서 여는 것이 좋다.

평가 회의는 그 지역에 고유한 삶의 문서를 해독하는 둘째 단계에 해당한다. 각 사람이 문서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느낀 것을 말할 때, 그 진술은 모두가 관심을 가진 같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 순간 그들은 타인의 ‘고찰’을 통해서 자신의 이전 ‘고찰’을 ‘재고찰’하게 된다. 이리하여 각 문서 해독자가 수행하는 현실 분석은 대화적인 방식을 통해 그들 모두를 분할된 전체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로써 현실은 다시 총체성이 되어 연구자에게 새로운 분석을 요구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평가와 비판적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대표는 연구자 팀의 성원처럼 모든 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연구 집단이 전체를 분할했다가 재통합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그들은 그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의 핵심에 점점 접근할 수 있다. 모순의 핵심을 찾아냄으로써 연구자는 이미 이 단계에서도 교육활동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사실 교육 내용이 그 모순을 반영한다면 그 지역의 유의미한 주제도 포함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 관찰에 입각한 행동이 ‘위에서부터 내려진 결정’에 입각한 행동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뻔하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 가능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모순(여기에는 사회의 주요 모순이 포함된다)의 핵심을 초기에 인식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모순을 어느 정도로 의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그 모순은 한계상황을 구성하고, 주제를 포함하며, 과제를 제시한다. 만약 개인들이 한계상황에 묶인 채 헤어날 수 없다면, 그 상황과 관련된 주제는 숙명론이 되며, 주제에 포함된 과제는 과제의 부재가 된다. 따라서 한계상황은 개이들의 요구를 유발하는 객관적 현실이지만, 그 개인들과 함께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현실로서의 한계상황은 지역에 따라(심지어 그 지역의 하위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며, 대립되는 주제와 과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은 골드만이 ‘현실적 의식’과 ‘잠재적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현실적 의식은, 잠재적 의식의 실현을 위해 경험적 현실의 다양한 요소들이 가로막은 수많은 장애물과 탈선을 극복한 결과다. (Lucien Golman, 1969)

현실적 의식은 한계상황 너머에 있는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은 ‘현실적[혹은 현재의] 의식’의 수준에서는 달성될 수 없지만, ‘실험행동’을 통해 지금껏 인식되지 않은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과 현실적 의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실험 행동과 잠재적 의식도 마찬가지다. 골드만이 말하는 ‘잠재적 의식’의 개념은 니콜라이의 용어인 ‘인지되지 않은 실용적 해법(우리가 말하는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과 비슷하며, 니콜라이의 ‘인지된 실용적 해법’과 ‘현재의 실용적 해법’은 골드만의 ‘현실적 의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연구의 첫단계에서 모순의 복합체를 대략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교육 행동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시작할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아직 연구자들의 것이지 민중의 것이 아니다.

연구의 둘째 단계가 시작되는 것은 모순의 복합체를 이해하는 때이다. 언제나 팀으로 행동하는 연구자들은 이 모순들 중 일부를 골라 주제연구에 사용될 문서로 만든다. 이 문서화(그림이나 사진)[[9]](#footnote-9)는 해독자들이 비판적 분석을 할 때 중재역할을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문서화를 준비할 때는 시각 보조자료를 만드는 통상적인 것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그 문서화가 반드시 주제를 검토받고 있는 사람 각각에게 익숙한 상황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상황(그리고 상황과 자신의 관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의 그림을 참가자들에게 낯선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연구가 진행 중일 때도 그렇고, 유의미한 주제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제시되는 후속단계에서도 그렇다). 그것은 오히려 참가자들이 침잠 상태를 말로 구술하는 더 기본적인 절차, 즉 자신의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왜곡된 일차적 인식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과정보다 더 나을것이 없다(하지만 낯선 현실을 분석하는 참가자들이 그 그림을 자신의 그림과 비교해 각각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도 변증법적이기는 하다).

문서화를 준비하는 데 근본적인 또 다른 조건은 주제의 핵심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거나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골적인 경우에는 단순한 선전으로 전락하여 명확하게 예정된 내용을 진술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난해한 경우에는 퍼즐이나 수수께기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문서화는 체험적 상황을 표현하므로 가급적 내용이 단순해야 하며, 다양한 해독의 여지를 남겨 선전의 세뇌적 경향을 피해야 한다. 문서화는 구호가 아니라 인식 가능한 대상이며, 해독자의 비판적 성찰이 수용할 수 있는 자극이다.

해독과정에서 다양한 분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문서화가 ‘주제의 부채’처럼 조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독자가 문서를 성찰할 때 자연스럽게 문서들이 다른 주제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연결(주제 내용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거나 난해하면 이 연결이 있을 수 없다)은 주제와 그 대립물 간에 존재하는 변증법적 관계를 인식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체험적 상황을 반영하는 문서화는 객관적으로 총체성을 구성해야 한다. 즉 그 요소들이 전체의 구성 속에서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문서 해독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제를 외면화하며 그럼으로써 세계에 대한 자신의 ‘현실적 의식’을 명료히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현재 분석하는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기 시작하며, ‘예전 인식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이러한 자각을 얻음으로써 그들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즉 인식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그들은 ‘배경의식’ 속에서 더욱 쉽게 현실의 두 차원의 변증법적 관계를 발견한다.

‘예전 인식에 대한 인식’과 ‘예전 지식에 대한 지식’을 자극함으로써 문서 해독은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지식을 낳는다. 이 새로운 인식과 지식은 교육 계획이 출범하는 것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지속되며, 그 결과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이 실험 행동으로 바뀌고 잠재적 의식이 현실적 의식을 대체하게 된다.

나아가 문서화를 준비하는 또 다른 조건은, 가능하다면 연구 대상 지역의 모순 체계를 구성하는 여타의 문제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포괄적인’ 문서화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 ‘포함’된 다른 모순들도 문서화되어야 한다. 전자의 해독은 후자의 해독에 의해 변증법적으로 명료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칠레의 대단히 중요한 정부기구인 농업발전기구(INDP)에서 일하는 젊은 공무원 가브리엘 보데(Gabriel Bode)는 우리 방법에 극히 귀중한 기여를 했다. 문맹퇴치 이후 단계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던 중에, 보데는 농민들이 문서화가 자신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때만 토론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그 문서화에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교육자가 해독 토론을 조금이라도 지도하려 하면 농민들은 곧바로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데는 문서화가 농민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도 농민들은 토론에 체계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자주 논점에서 벗어나 종합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또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그 요구의 직-간접적 원인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낳은 한계상황 너머에 있는 실험되지 않은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뒈 보데는 서로 다른 상황을 대상으로 동시적인 계획을 실험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기법에 그의 공헌이 있다. 처음에 그는 한 체험적 상황에 대해 아주 단순한 문서화를 실시한다. 그는 이 첫번째 문서화를 ‘본질적’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기본적 핵심을 나타내고 ‘보조적’ 문서화에 까지 이르는 주제의 부채를 펼친다. 본질적 문서화가 해독된 뒤 교육자는 그 투영된 이미지를 참가자들의 전거로 삼고 계속해서 보조적 문서화를 병행한다. 본질적 문서화와 직접 관련된 이 보조적 문서화를 통해 그는 참가자들의 생생한 관심을 유지함으로써 종합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가브리엘 보데의 업적은 본질적 문서화와 보조적 문서화의 변증법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총체성의 감각을 전달했다는 데 있다. 현실 속에 침잠해 단지 자신의 요구를 감지할 뿐이던 개인들이,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자기 요구의 원인을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현실적 의식의 수준을 넘어 잠재적 의식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문서화가 이루어지고 주제의 모든 가능한 측면들이 학제적 팀에 의해 연구되고 나면, 연구자들은 셋째 단계의 연구를 시작한다. 그것은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 ‘주제 연구 집단[[10]](#footnote-10)’에서 해독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앞선 단계에서 준비된 재료를 해독하는 이 토론은 녹음된 뒤 나중에 학제적 팀에 의해 분석된다.[[11]](#footnote-11) 회의에는 해독 조정자로서 참여하는 연구자 이외에 다른 두 전문가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도 참여한다. 그들의 임무는 해독자들의 중요한 (그리고 겉보기에는 중요치 않은) 반응을 기록하는 일이다.

해독 과정에서 조정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문서화된 체험적 상황과 그들 자신의 대답을 문제로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 방법론의 카타르시스적인 힘 덕분에, 주제 연구 집단의 참가자들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자신과 세계, 그리고 타인들에게 관한 감상과 견해를 외면화할 수 있게 된다.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어느 주제 연구 – 이 특별한 연구는 불행히도 완성되지는 못했다 – 에서는 빈민 집단이, 술에 취해 거리를 걷는 한 사람과 거리 한모퉁이에서 잡담을 하는 세 젊은이가 있는 장면에 관해 토론했다. 집단 참가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유일하게 생산적이고 조국에 쓸모가 있는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종일 저임금을 받으며 일한 뒤 귀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늘 가족들 걱정을 하고 있죠. 거기서 노동자는 그 사람뿐이에요. 우리처럼 당당한 노동자이고 주정뱅이죠.”

연구자는 원래 알코올 중독에 관해 연구할 참이었다. 그가 만약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애써 만든 질문서를 주었더라면 앞의 대답 같은 것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받는다면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부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있음을 알고 있는 체험적 상황을 문서화한 자료에 관한 토론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저임금, 피착취와 술에 취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이고, 좌절과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파괴적 해법이다. 주정뱅이는 “조국에 유일하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놈팽이들이죠.” 이렇게 주정뱅이를 치켜세운 뒤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주정뱅이와, 술도 마시고 일도 하는 ‘당당한 노동자’와 일치시킨다.

그와 반대로, 도덕주의적 교육자가 실패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는 알코올 중독증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도덕의 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도덕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이런 경우 유일하게 건전한 방법은 상황의 의식화밖에 없는데, 이것은 주제 연구의 처음부터 시도되어야 한다.(의식화란 단순히 주관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는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인간화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투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농민들을 상대로 한 또 다른 경험에서 나는 임금인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밭에서 일하는 상황을 놓고 토론하는 내내 변하지 않는 동기는 임금인상 요구였으며, 이 특수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쳐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그 모임에서는 세가지 상황이 논의되었으나 핵심은 늘 같았다.

이제 어느 교육자가 이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물은 우물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유익한’ 서적들을 읽게 한다. 바로 이런 정도가 교육과 정치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의 대화적 성격이 주제 연구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못한다.

집단의 문서해독이 완수된 다음에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다. 연구자들은 발견 성과를 놓고 체계적인 학제적 연구에 착수한다. 해독과정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심리학자와 사회학자가 작성한 기록을 보면서 연구자들은 연구 기간 중에 얻은 진술 중에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주제들을 뽑느다. 이 주제들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주제들을 각각 별개의 범주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안라, 단지 관련된 사회과학의 특수한 관점에서 주제를 바라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발전이라는 주제는 주로 경제학에 적합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주제는 사회학, 인류학, 사회심리학 등 문화 활동이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다루는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다(발전의 철학에서도 다룰 수 있다). 또한 발전의 주제는 정치학에서도 발전을 포함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주제로서 다뤄질 것이며, 교육학에서도 중시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총체성을 규정짓는 주제들은 엄격하게 별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주제들이 현실의 다른 측면들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해석과 더불어 상세히 연구된 다음에 오히려 그 풍부함(과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입장에서 다시 다뤄진다면 그 결과는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주제 분류가 끝나면 각 전문가들은 학제적 팀에게 자기 주제를 ‘세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찾아낸 근본적 핵심에 의해 학습 단위가 구성되고, 순서가 정해지며, 주제에 관한 일반적 견해가 얻어진다. 특정한 계획이 논의될 때마다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이 의견들은 계획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해당 주제에 관한 짧은 논문에 실릴 수도 있다. 서지학적 정보도 함께 수록된 그 논문은 장차 ‘문화집단’에서 일하게 될 교사-학생들을 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중략)

주제들의 세분이 끝나면 ‘문서화’ 단계가 이어진다. 즉 각 주제에 맞는 최선의 의사소통 통로와 재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서화는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다. 단순한 것은 시각(그림이나 도표), 촉각, 청각을 이용한 소통이고, 복잡한 것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

(중략)

어떤 주제나 핵심은 짧은 연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주제만 포함시키고 절대로 ‘해결책’은 다루지 말아햐 한다! 이경우 극화는 문서화처럼 토론할 문제 제기식 상황의 역할을 한다. 그 밖의 교육 자료 – 여기에는 은행 저금식 교육법이 아니라 문제 제기식 교육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 로 잡지와 신문의 기사, 서적의 일부도 활용할 수 있다(인용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녹음된 인터뷰의 경우처럼 그 글의 작성자를 초청해서 토론을 벌여도 좋다.

(중략)

모든 교육 자료가 구비되고 각 자료마다 짤막한 도입부가 작성되었으면, 교육자 팀은 민중에게 민중 자신의 주제를 체계적이고 증폭된 형태로 제시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주제는 민중에게서 나와 민중에게로 돌아갈 때,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문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중략)

해방 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중이 자기 사고의 주인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있다. 즉 민중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토론하고, 그것을 자신이나 동료의 제안에 담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대신에 먼저 민중과 함께 대화를 통해 그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피억압자의 교육학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며 여기에 억압자도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현대 학자들과의 인터뷰[[12]](#footnote-12)**

Q. 프레이리의 업적이 연구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해 달라

[발레리 킨로크, 미국 피츠버그 대학] : (중략) 연구를 일상 생활의 범위 -매일의 현실, 삶, 삶의 조건, 투쟁, 사람들의 희망- 안에 넣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 연구에서 함께/우리 연구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논문이나 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근본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쓰는 것이다.

[피터 메이요, 몰타 대학] : 프레이리가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참여 실행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라고 알려진 접근법에서 느낄 수 있다. 참여 실행 연구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주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집단 연구의 형태이다. 나는 프레이리가 연구의 윤리에 대해서 할말이 아주 많다고, 연구 의제와 과정을 결정할 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참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할말이 아주 많다고 주장하고 싶다. 연구 대상이 전체 연구과정과 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연구과정과 결과는 연구 대상의 삶을 개선해야한다. 이것은 지식과 연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의 선택과 목적을 긍정하기 위한 노력이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해석뿐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연구이다.

1. (책에 나온 각주) 행동 + 성찰 = 말 = 일 = 프락시스

   행동의 부재 = 탁상공론

   성찰의 부재 = 행동주의 [↑](#footnote-ref-1)
2. (제가 쓴 각주) 기존에 쓰이는 실천(practice)이 성찰이 부족한 행동을 포함하기에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프락시스(praxis)라는 별도의 단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footnote-ref-2)
3. (책에 나온 각주) 물론 나는 심오한 명상의 침묵을 말하는게 아니다. 이런 침묵은 인간이 세계와 거리를 둔 상테에서 세계의 총체성을 조망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머물려는 의도를 지닌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은거가 참된 것이 되려면 명상자가 현실에 ‘몸담고’ 있어야만 한다. 그 은거가 일종의 ‘역사적 정신분열증’처럼 세계에 대한 경멸이거나 도피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된 것일 수 없다. [↑](#footnote-ref-3)
4. (책에 나온 각주) 나는 진정한 혁명가라면 혁명이 창조적이고 해방적인 행위라는 점과 아울러 사랑의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혁명은 혁명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 따라서 혁명은 곧 과학이지만 – 동시에 사랑과도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혁명은 자신들의 인간화를 달성하려는 민중의 의지로 이루어진다. 각 개인을 혁명가로 만드는 동기는 바로 민중의 비인간화에 있지 않은가? 자본가 세계가 ‘사랑’이라는 말을 왜곡시킨다고 해서 혁명이 본질적으로 사랑의 행위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혁망가는 자신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바라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스꽝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된 혁명가라면 누구나 사랑의 강렬한 감정에 이끌린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이 없는 진정한 혁명가는 생각할 수 없다” [↑](#footnote-ref-4)
5. (제가 쓴 각주) 일방적 주입. 은행 저금식 기법의 관점에서 민중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냥 암기하는 것. <-> 문제제기식 교육 [↑](#footnote-ref-5)
6. (제가 쓴 각주) 여기서 파울로 프레이리가 말하는 ‘연구’란 민중 교육을 하기 위해 그 교육 주제와 내용을 민중으로부터 얻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민중과 만남 -> 연구 -> 교육 주제 및 내용 도출. 바로 여기에서 교육사상가인 파울로 프레이리가 연구분야(시민참여연구)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습니다. [↑](#footnote-ref-6)
7. 한계 상황(limit situation) : 자신을 제한하는 상황. 해방을 저해하는 족쇄와 장애물. (p123) [↑](#footnote-ref-7)
8. (책에 나온 각주) 브라질의 사회학자 마리아 에디 페레이라의 미발표 논문에 따르면, 주제 탐구는 민중에게 진정한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민중에 관해 배우려 하지 말고 민중과 더불어 현실에 관해 알려 하는 한에서 주제 탐구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footnote-ref-8)
9. (책에 나온 각주) 문서화는 구술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문서화는 실존적 문제를 말로써 다룬 다음 해독작업이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된다. 칠레농업개혁기구의 팀은 주제연구에서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footnote-ref-9)
10. (책에 나온 각주) 각 ‘연구 집단’은 스무 명을 최대로 해야한다. 또한 연구 집단의 수는 연구 대상인 지역이나 하위 지역의 10퍼센트를 포괄할 만큼 많아야 한다. [↑](#footnote-ref-10)
11. 이 후속되는 분석회의에는 연구에 보조로 참여했던 그 지역의 지원자들과 ‘주제 연구 집단’의 참가자들 일부가 참가해야 한다. 그들의 참여는 그들의 권리이자 전문가의 분석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들은 전문가의 공동연구자이므로 전문가가 발견 결과를 해석한 내용을 수정하고 재가한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참여는 연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민중 대표는 주제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방적 문화 활동으로서의 교육 행동 프로그램 내용을 편성하는 데도 참여해야 한다. [↑](#footnote-ref-11)
12. 발췌한 책이 페다고지 50주년 기념판으로 현대 학자들의 인터뷰가 별도로 실려 있습니다. [↑](#footnote-ref-12)